



## 허남식 부산시장 우리회사 방문

기업방문은 이례적... 현장체험 및 임직원 격려시간 가져

지난 8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우리회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이 민심을 읽기 위해 정기적으로 각구를 시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허남식 시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무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우리회사 교육장의 우수 사원 사진을 보고 "사원들이 사진을 보고 더욱 더 애사심을 느낄 수 있겠다"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의전실에서 진행된 회사소개 프리젠테이션과 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우리회사서재욱 차장, 김청욱 차장, 고상현 대리가 허남식 시장으로부터 '모범근로상'을 받았다.

그 후 허남식 시장은 임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회사 설계부의 3D '트라이본' 시연 후에는 "선보공업의 눈부신 발전이 이윳가 있었다"며 설계부의 기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손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현장으로 내려가 직접 현장 직원들을 만나 우리회사의 제품소개를 듣고 현장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며 격려했다.

현장 체험이 끝난 후 식당에서 직원들과 어울려 점심을 함께 하던 허남식 시장

이 "선보는 정년퇴직이 없는 것 같아 좋다"고 우리회사의 터줏대감 근로자들을 격려하자 근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언제까지라도 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화답했다.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읽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우리회사 방문 소감을 전했다.



###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월달에는 설계부 오창배사원, 생산부 김유미 사원, 설계부 홍성원 사원, 설계부 나성현 사원, 설계부 권대훈 사원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 우리회사, 전사교육 실시

의뢰해 우리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리회사는 이전에도 전사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이벤트 식 단발적 교육에 그쳐 아쉬움을 샀었다. 올해 실시되는 전사교육은 이전과 달리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리자능력향상과정과 전사원의식교육으로 나누어지는 올해 전사교육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행동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행동교육은 래프팅이나 서바이벌게임 같은 팀워크를 살리고 조직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자 능력향상과정을 듣고 있는 한 직원은 "경험이나 느낌에 의한 지식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회사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사고 함양과 더불어 의식 혁신을 위한 전사원의식교육(이하 전사교육)을 지난달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교육은 올해 초 최금식 대표이사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인재제일' 주의의 한 방법으로 실시됐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에게 적극적, 창조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전사교육은 한국경영교육컨설팅에 교육을

# 신명나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김성규 총무기획 이사

 지난 3일 선보의 새로운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총무기획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김성규이사가 새로 부임한 것.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에 입사한 김 이사 업무는 항공기 정비, 개조, 제작이었다. “선보가 배의 Unit나 Block을 만들어서 현대, 대우, 삼성 등에 납품 하듯이 항공기 부품과 조립품을 만들어서 미국 보잉사나 유럽의 에어버스사 등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한 일을 하였습니다.” 김 이사는 대한항공 현장에서 10년, 엔지니어로 12년, 경영관리 분야에 7년간 근무하면서 부경대 공대와 부산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부산대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현재 인제대 경영통상학과 겸임교수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을 강의 중인 김 이사는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경영학의

이론을 접목해 선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선보에 대한 첫 느낌은 ‘성장하는 회사’ 였다고 한다. “선보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깔끔한 사무환경과 열심히 하는 임직원의 모습에서 성장하는 회사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라는 사훈이 좋고, 인상 깊었습니다.” 김 이사는 “우선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신명나는 회사를 만든다면 선보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포부를 전한다. 기업을 창업 할 때는 창업자의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열정이 중요하고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 이사는 선보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하는데 시스템적인 체계를 갖추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6~70년대에는 부산의 동명목재

가 대한민국 수출 1등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BCG(Boston Consulting Group) 제품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숙기에 접어든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신규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보가 이와 같은 성장원동력을 키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보 임직원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김 이사는 “개인 비전과 회사발전의 일치점을 찾아 모두가 열심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보는 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일터 안에서 형, 아우 같은 직장동료로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선보의 발전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업체탐방**  
**(주)동일정공 조태환 대표**




## 가족같은 분위기의 따뜻한 기업! \_ 동일정공

‘협력업체탐방’은 선보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해당 업체에 대해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동일정공. 가족 같은 50여명의 직원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한다는 조태환 대표를 만나 동일정공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직원**  
동일정공은 Grating 체크플레이트, Support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생산업체다. 지난 96년 김해시 지내동에 태일정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 후 지난 98년과 2002년 공장 이전에 이어 상호를 동일정공으로 바꾸고 지난 2005년 김해시 상동면으로 이전해 현재 약 2,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선보와의 인연은 벌써 8년 째라는 조태환 대표는 “선보 이동운 과장이 우리회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선보에 가면서 추천 받아 선보에 납품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선보와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 물량확보가 어

려워 일을 잠시 그만 둔 적이 있었는데 선보를 만나면서 다시 일 할 수 있었거든요.”라며 그때 일을 회상했다.

동일정공의 특징을 묻자 조태환 대표는 “가족같은 분위기”가 아닐까라며 씩스럽게 웃는다. “직원들과 격의없이 지내는 편이에요. 일 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믿으니까 다른 업체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라며 직장 내 분위기를 내세운다. 따라서 노사관계에 불신이 없어 열심히 일한다는 동일정공 식구들은 10명이 12개, 13개를 만들어 내는 등 인원에 비해 능률이 높다고. “현장 분위기가 무척 좋은 편이에요. 아침에 20분 정도 일찍 와 하루 해야 할 일을 토론 후에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직원들이 서로 돕고 다들 내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규모 늘려 직원복지에 힘쓸 터**  
올해 동일정공은 전체적으로 월 1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전진중이다. 선보공업에는 월 5억 매출을 생산목표로 잡았다고. 조태환 대표는 “선보와 우리가 기업하는 이상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하

다면 둘 다 잘 되지 않을까?”라며 선보와의 협력을 다짐한다.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김해에 땅 2,300평 가량을 매입한 동일정공은 올해 5월 초 공장을 이전 할 예정이다.

“공장 규모를 조금 더 키워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복지시설에도 조금 더 신경 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직원 복지가 잘돼야 생산성도 향상되는 것이 아닐까요?”

선보공업에 한마디를 부탁하자 조태환 대표는 “모든 일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

토 후 작업할 수 있게 조금 더 미리 줬으면 합니다.”라고 전한다. 또 ‘상호간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태환 대표는 “우리회사가 선보를 만나 일 걱정 없이 잘된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며 “올해 선보가 지향하는 목표를 따라 우리도 열심히 일할테니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선보와의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막바지 겨울 바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동일정공 조태환 대표와 직원들의 모습에서 이 기업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 LPG 선박에 대한 기술

## 1. 액화 가스의 특성 (상)



### LPG란 무엇인가?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 라고 하며, 주로 PROPANE 과 BUTANE 으로 구성된 석유탄화수소의 합성물질이라 말하고, 이것은 무색, 무취, 무독이나 가연성이 높다.

LPG의 주 공급원은

- 1) 가스전이나 유전지대의 SOUR 혹은 습성 천연가스를 분류하며, LPG도 같은 방법으로 천연가스에서 분리해서 나온다.
- 2) 석유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증류법의 하나의 부산물로 분리된다.

LPG는 매우 가벼운 탄화수소이며, 쉽게 액화 가능하며 고칼로리의 깨끗한 연료이다.

또한 액체상태로 육로, 철도, 해상으로 수송되며 판매점에서도 액체상태의 보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업연료, 화력발전 연료, 화학물질, 솔벤트, 가정연료, 라이타연료 등 그 수요가 다양하여 앞으로 소비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 주요 액화가스의 물리적 성질

- 1) PROPANE은 화학적으로 한 종류이지만 BUTANE은 두 종류, 즉 n-BUTANE(NORMAL BUTANE)과 i-BUTANE (ISO BUTANE)으로 분류되며, 이 둘은 성질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며 NORMAL 70%, ISO 30% 비율로 되어 있다.

- 2) 분자량  
PROPANE은 약 44, BUTANE은 약 58인데, PROPANE은 1.5배, BUTANE은 약 2배 공기(29)보다 무겁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가 공기중으로 누설 될 경우 낮은 장소로 흐르기 때문에 갑판상에서 누설된 가스는 거주구 입구를 통해 기관실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하역중에는 상갑판, 출입구, 선창등은 철저히 닫고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여 출입토록 해야한다.

- 3) 비중  
액화한 경우의 비중은 PROPANE, BUTANE 모두 약 0.6으로 물의 약 절반이다. 따라서 만일 화물통에 얼음이 있는 경우, 뜨지않고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CARGO PUMP가 시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METHANENOL을 주입하여 얼음을 녹혀야 한다.

비중은 화물 중의 PROPANE, BUTANE, ETHANE, METHANE 등의 성분비 및 온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화물의 적하 LEVEL을 중량으로 표시할 경우 실제로 계측한 액면 즉 체적에 비중을 곱하여 중량을 계산하게 되므로 화물을 적재시 정확한 비중을 알아 둬서 동시, 실제로 본선의 정확한 온도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 4) 증기압  
어떤 온도에 있어서 액체로부터 증발하는 GAS의 압력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GAS를 액화하기 위한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통, 20°C에서의 PROPANE의 증기압이 약 8기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양단에 VALVE가 장치되어 있는 PIPE 내에 액화 PROPANE을 넣은 채, 각 VALVE를 잠궜다면, 비록 PIPE에 보냉제가 되어 있더라도, 외부로부터 열이 침입, 내부의 압력이 온도와 함께 상승, 섭씨 20°C에서 8기압이 되어 온도가 더 올라가면 PIPE가 내압강도를 초과하는 압력이 되어 파괴 된다.

물론 이를 위해 안전변이 설치되지만, 액체인 속에 만약 액이 있을 경우 일방의 발브를 약간 열어야 한다.

- 5) 폭발한계  
공기중에 폭발하는 GAS의 농도를 말하며 위 표에서 FLAMMABLE RANGE %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액화 PROPANE 이 기화하면, PROPANE은 약 300배, BUTANE은 230배의 용적으로 팽창하여, 그 폭발범위는 일반 원유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폭발한계도 산소를 감소시켜가면 점점 폭발 상한선과 하한선이 가까워져 결국 폭발 범위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의 산소 농도가 약 12%가 된다. 따라서 DOCKING시 INERTING에 있어서 산소 농도가 약 9% 이하로 확실하게 내려가 있으면 폭발 위험이 사라진다.

- 6) BOILING POINT (비점)  
액체가 끓는 온도를 말하는데, 대기압 하에서 PROPANE 약 -42°C,

BUTANE 이 -0.5°C이다. 그러나 압력이 변하면 비점도 변한다. 또한 불순물의 함유량에 의해서도 비점은 변한다. 즉 선박에서 가스의 증발로 인한 압력이 상승하면, 온도도 상승하여 비중이 작아진다.

이 결과 액체는 팽창하여 액면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압력의 변화에 따른 액면의 상승을 생각하여 화물 탱크 용적의 정상적인 LEVEL 이상으로 과적하지 않도록 한다.

- 7) 증발잠열 (LATENT HEAT)  
액화되어 있는 PROPANE 또는 BUTANE을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화물 탱크 또는 PIPE 등이 보냉제에 의해 보냉되어 있으나 그래도 외부로부터 열이 침입하여 그 열량에 상당하는 화물이 기화되어 가스가 된다. 이로인해 화물 탱크의 압력이 올라가며 본선의 재액화 장치를 운전하여 화물탱크의 압력을 항상 조절하여야 한다



## 선보의 아름다운 가족이야기

### 세남자 이야기

**장상권주임**

**장수복팀장**

**장세열사원**

경상도 남자 세 명이 모이자, 공기가 무겁도록 조용하다. 우리회사에 20년 째 몸담고 있는 아버지 장수복 팀장과 아들 장상권 주임, 장세열씨. 겉치레 말 없이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푹뚝 묻어나는 조용한 인터뷰가 시작됐다.

생산1팀 장수복 팀장, 생산2팀 장상권 주임, 생산3팀 장세열 씨. 하는 일도 장소도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이라는 것. 우리회사 터줏대감 장수복 팀장의 추천으로 3년 전 큰 아들 장상권씨가, 형의 추천으로 막내 장세열씨가 3개월 전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장상권 주임은 "회사에서 파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주 보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정도 볼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들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는 질문에 아버지 장수복 팀장은 "둘 다 몸 건강히 맡은 일을 잘해주어 바랄게 없다"며 "앞으로도 사고 없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장세열씨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좀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아버지 건강을 염려

한다.

형 추천을 받아 회사에 입사한 3개월 차 장세열씨에게 회사에 들어오니 어머니고 묻자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맡은 일에 충실히 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장상권 주임은 "막내가 갖 들어왔지만 열심히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조만간 주임 달도록 노력해라"고 동생을 격려했다.

다 큰 아들들이 마냥 대견한 장수복 팀장은 "사실 경로당에 갈 나이인데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며

"아들들과 건강하게 사고 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모두 분기해 따로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모여 가족의 정을 느낀다는 이들 세 남자는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건강이 최고"라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서 무뚝뚝하지만 정 많은 가족의 모습이 느껴졌다.

웃는 모습이 맑은 세 사람. 앞으로도 선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일에 발을 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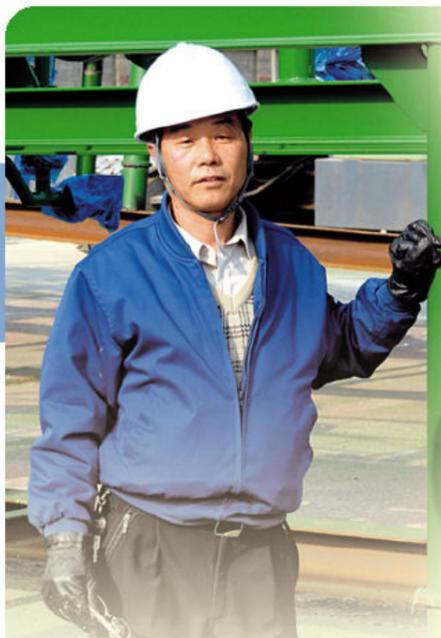


칭찬 릴레이

김진삼 도장팀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들의 반장님!"

선보가족의 11호 칭찬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유지종)



생생 현장의 소리

영도공장 양지환 소장



로근성이 있어서 쉬는 날을 반납하더라도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해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사실 적체공간이 부족한 편이고 적기 공급되지 않는 자재 문제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해 여름,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다들 잘해줘서 영도공장이 자리를 잡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재문제나 공간문제도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 시에는 A/S처리 안되도록 불량품 없이 물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처음부터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해 납기 맞추고 불량품을 최소화시키면 A/S비용도 감소하고 회사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선보 매출목표가 1,000억 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1,000억 목표에 맞게 열심히 해 선보에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돼야 선보가 잘되고 선보가 잘돼야 우리도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지난해 9월초 영도공장이 설립됐을 때 초창기멤버로 같이 시작했으니, 벌써 이곳에 온지도 5개월이 지났네요.

우리가 하는 일은 SPP유닛작업입니다. 유닛 생산이지요. 지금이야 이렇게 바닥에 철판도 깔리고 나아졌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정말 흠바닥이었어요. 자재 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 다들 고생이 많았지요. 아직은 자리가 잡혀가는 과정이니 힘든 일이 많지만 서로 아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점차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욱 바쁜 편이에요. 우리는 납기공정을 맞추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될 때가 많아 일이 늦어져도 납자를 맞추기 위해 끝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힘든 일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의 멋진 반장님, 김진삼씨를 칭찬합니다.

칭찬 릴레이 11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해주세요.

유지종씨는 항상 열심히 하고 회사를 먼저 생각해주는 좋은 분이세요. 같은 파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하.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시는지요?

항상 회사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일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팀원들에게 짜증을 내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요즘 바쁘다보니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텐데 싫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잘 따라

주는 팀원들에게 고마워요.

12호 칭찬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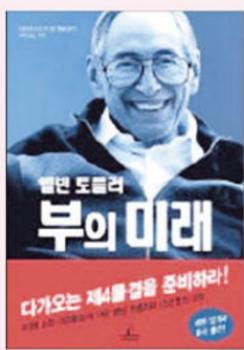


용접반에 김수환씨를 추천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우리 회사에 특례병으로 근무 중이에요. 특례병으로 일하면서 게으름 한 번 피우지 않고 맡은 일을 너무 잘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뒷공정을 생각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일하느라 퇴근시간을 미루기도 하는 등 자기시간을 할애 해서라고 끝까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웃고 다니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김수환씨를 12호 주인공으로 칭찬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부의 미래

미래의 부(富)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논거한 책...

**책 소개**  
《미래쇼크》, 《제3물결》를 통해 일찍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다가오는 제4물결을 예견하고 경제에서 사회제도, 비즈니스부터 개인의 삶까지 미래 세계를 조명한다. 그가 15년 만에 내놓은 《부의 미래》는 제목 그대로 미래의 부(富)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논거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 아니라 문화와 문명이라는 좀 더 커다란 구조 속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영

향을 미치는 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며,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 공간, 지식이 어우르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

앨빈 토플러는 혁명적 부 창출의 요인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꼽는다. 그는 자칫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요인을 비즈니스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을 주관하는 기반(fundamental, 펀더멘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는 심층 기반

(deep fundamentals)으로 규정했다. 먼저 그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속도의 충돌 때문임을 밝힌다. 경제발전의 속도를 사회 제도나 정책 등이 보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 제도는 30마일도 안되는 속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런 속도의 차이는 결국 상호 충돌을 야기하고 변화, 발전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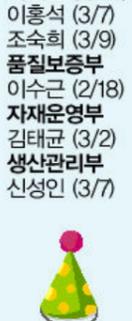
선보공업(주)

- 생 일 설계부 오용석 (2/15) 김경수 (2/26) 구매부 예연희 (3/4) 생산1팀 윤기현 (3/2) 생산2팀 이광희 (2/23) 이해욱 (3/1) 손인철 (3/7)

생산3팀

- 천세관 (2/17) 이종호 (2/23) 지용천 (3/1) 품질보증부 김태형 (2/23) 입사기념일 관리부 송세진 (3/1) 생산2팀 박희순 (3/1) 한진우 (3/2) 생산3팀

이재현 (2/20) 이홍석 (3/7) 조숙희 (3/9) 이수근 (2/18) 자재운영부 김태균 (3/2) 생산관리부 신성인 (3/7)



선보유니텍(주)

- 생 일 설계부 김영호 (2/19) 김경수 (2/26) 오창배 (3/10) 명성산업 권대식 (2/16) 황진석 (2/19) 황경일 (3/4) 구동우 (3/14) 대경산업 고창률 (2/20)

심주섭 (2/24)

- 입사기념일 설계부 김경수 (3/2) 영업부 강현욱 (3/2) 품질부 윤용남 (3/2) 생산부 박준복 (3/2)

동대극영화소개



**그놈 목소리**  
감독: 박진표  
출연: 설경구, 김남주, 강동원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22분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감독: 박성균  
출연: 신현준, 최성국, 권오중  
장르: 코미디  
상영시간: 97분



**미녀는 괴로워**  
감독: 김용화  
출연: 주진모, 김아중, 성동일  
장르: 코미디  
상영시간: 120분



**바람피기 좋은 날**  
감독: 장문일  
출연: 김해수, 윤진서, 미중혁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03분



**살인의 거미줄 (자막)**  
감독: 게리 워닉  
출연: 다코타 페닝, 보 브리지스  
장르: 드라마, 코미디, 가족  
상영시간: 97분



**아포칼립토**  
감독: 롤랜드 에머리치  
출연: 루디영글러드, 알리샤 키우  
장르: 액션, 어드벤처  
상영시간: 137분



**최강로맨스**  
감독: 김정은  
출연: 미동욱, 현영, 이정현  
장르: 코미디, 로맨스  
상영시간: 109분



**클릭**  
감독: 프랭크 코라치  
출연: 아담 샌들러, 케이트 베킨세일  
장르: 상영시간: 107분



**황후화**  
감독: 장예모  
출연: 주윤발, 공리, 주걸륜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13분